

전주한지문화축제 내달 4~6일 개최

전주한지 시장개척, 한지 산업화 가능성 높인다

전주한지가 해마다 전주한지를 활용한 대규모 축제를 개최하는 것은 세계에서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보물인 전통한지의 전통보존은 물론, 한지의 쓰임새를 넓혀 한지의 산업화와 세계화를 이룩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전통한지산업을 키우기 위해 공공기관과 교육기관, 종교계,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전통한지 판매활동에도 매진하고 있다.

▲세계가 주목한 '전주한지' 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전주한지는 그간 전주시의 노력으로 가톨릭의 심장부인 비리간 교구청과 투르브라박물관 등 세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대표적으로 투르브라박물관은 소장 문화재의 복원용으로 전주한지를 사용한다 이어 대한민국 전통한지의 우수성을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열기도 했다. 비리간교구청도 전주한지의 쓰임새에 주목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장은 지난 2017년 전주한지로 원본과 똑같이 만든 '고종황제 친서'를 교황과 비리간교구청에 전달했다. 여기에, 전주한지는 유네스코본부와 함께하는 문화재 보존 캠페인을 통해 아프리카 분쟁국가에 보내지기도 했다.

가장 큰 어려움인 좁은 판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기존 한지장인들이 지업사와 필방 등과 개인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수요처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국내 주요 공공기관과 교육기관, 종교계, 금융권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전통한지 판매할

공공기관·교육기관 대상 전통한지 판매활동 추진 한지 수의 납품 등 한지 사용분야 판로확대 노력

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시는 한지산업지원센터와 한지사업협동조합과 함께 대상기관별로 맞춤형 디자인된 한지제품 견본과 활용 가능한 한지제품들을 가지고 방문하는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전개해왔다. 그 결과 방문기관들이 전주전통한지의 우수성과 한지사용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지난 3월말 기

준 판매량이 20만장 정도를 기록했다. 시는 공공기관과 종교계 등에 연간 60만장(A4용지 기준)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중요서신과 수료증, 임용장, 상장 등의 분야에 전통한지를 사용하도록 보다 체계적인 홍보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도 최근 재향군인상조회와 전통한지수의 납품계약 체결하고 이달 중 40발을 납품할 예정이다.

시는 전통한지수의 분야 판로확대를 위해 한지사업협동조합과 협력해 전북지역 주요병원 장례식장과 공설 장례식장, 경기도 지자체 직영 공설 장례식장 등을 상대로 구매를 독려할 계획이다.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전주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지장분들에게 힘이 되도록 많은 내수시장 개척에 앞으로도 힘을 쏟을 계획"이라며, "전주전통한지 사용의 사회적분위기가 확산돼 한지의 활용분야가 넓어져 전통문화 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청원 힐링캠프 운영

바쁜 공직생활에 지친 전주시 공무원들의 누적된 스트레스 해소와 감성소통을 위한 힐링캠프가 운영된다. 전주시는 2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3일간 여수 해이리호텔에서 제1기 6·7급 직원 60명을 대상으로 다비움 힐링캠프를 진행한다 밝혔다.

이번 캠프에 참석한 직원들은 스트레스 진단과 관리법 체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그간의 업무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긍정에너지충전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시는 이번 1기 다비움 힐링캠프에 이어 오는 6월 28일부터 28일까지 8·9급 직원 80명을 대상으로 2기 다비움 힐링캠프를 진행할 예정이며,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는 직급에 구분없이 직원 80명을 대상으로 3기 어울림 힐링캠프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이번 힐링캠프를 통해 직원들이 심신을 안정시키고 긍정적 마인드를 갖도록 만들어 줄거라 마음과 환한 얼굴로 민원업무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행정만족도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 농업인대학 딸기과정 개강

전주시에 맞춤형 농업교육을 통해 지역 농업인들을 전문농업 CEO로 양성하기로 했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는 24일 기후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문기술교육인 전주시 농업인대학의 딸기과정 개강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농업인대학 딸기과정은 이날부터 오는 11월 13일까지 약 8개월 동안 진행되는 장기프로그램으로 총 25회 100시간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딸기과정의 경우 기초 이론에서부터 심화 교육까지 체계적인 이론교육과 농업현장에서 바로 응용 가능한 실습형 사례중심의 교육이 진행되고 작목시기별 문제해결 방법 교육 등도 제공된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앞으로 농촌의 발전은 물론 고부가가치 농업을 이끄는 전문농업 경영인들을 다수 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성년 맞은 국제영화제 준비 '꼼꼼하게'

전주시, 추진상황 현장점검

전주시에 전주국제영화제를 평생 추억으로 남을 영화제로 만들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작업이 나섰다. 시는 24일 '제20회 전주국제영화제'의 주 행사공간인 고사동 영화의 거리 일대에서 김양원 부시장과 관련 부서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제 준비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밝혔다. 특히 이날 현장점검에서는 △거리 문화광장 △영화의 거리, △'전주 돔'이 설치되는 영화제 주 행사장인 옥토CGV주차장 △전주영화제작소 등 영화제의 공간이 되는 주요장소를 돌아보며 영화제 준비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폈다. 또한 △영화의 거리 아케이드 도색 △바다 교통표지 도색 △각종 시설물

정비 등 현재 정비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할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 전주국제영화제의 랜드마크인 '전주 돔'과 전주라온지 구성에 한창인 옥토CGV주차장을 찾아 시설물 설치 현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시는 이번 제20회 전주국제영화제 준비를 위한 현장점검을 통해 발견된 영화제 공간 요소요소의 미비점을 보완해 영화제 전까지 준비를 완료할 방침이다. 한편, 제20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는 5월 2일부터 11일까지 새로운 옷을 입은 고사동 영화의 거리 일원과 팔복예술공장에서 개최되며 총 53개국, 275편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구호 외치는 전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 관계자들. 2회 전주퀴어문화축제 개최 및 전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이 24일 전주시청 농수산관에서 실시된 가운데 전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도내 장애인단체들 "시민권 보장하라"

이동권·활동보조 자부담 폐지·일자리 사업 확대 등 촉구

전북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인 차별 철폐와 완전한 시민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 420 장애인 차별 철폐 공동행동은 24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이동권, 활동보조 자부담 폐지,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전북에 등록된 장애인은

13만 1000명으로 전체 도민의 7.1%를 차지한다"며 "전북은 전국 시·도에서 두 번째로 장애인 등록 비율이 높은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북은 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서비스는 시행 계획조차 없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재난안전 대책도 지방 행정이나 의회에서 논의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석훈 기자



전주오픈국제태권도대회와 뉴욕오픈태권도대회는 24일 양 도시 태권도인의 교류 및 기술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주 - 뉴욕, 태권도로 우정을 맺다

전주오픈국제대회 조직위, 뉴욕오픈대회 조직위와 MOU

전주시와 미국 뉴욕시는 태권도를 매개로 한 민간교류에 나선다. 전주오픈국제태권도대회(위원장 강영수)와 뉴욕오픈태권도대회(대회장 박연환)는 양 도시 태권도인의 교류 및 기술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전주오픈국제태권도대회 조직위원회가 뉴욕오픈태권도대회 조직위원회 임원들의 전주 방문을 계기로 우호교류협약서에 서명하고 상호 발전에 도모하며 우의를 돈독히 해

나가기로 뜻을 모으면서 서명했다. 양 조직위원회는 이번 MOU를 바탕으로 향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양 대회의 성장에 서로 기여할 것을 약속했다. 또, 전주 문화관광 홍보와 뉴욕의 태권도 저변확대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전주오픈국제태권도대회 조직위원회는 오는 7월 중순 개최 예정인 제7회 대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뉴욕 오픈태권도대회는 올해 13회회를 맞는다. /송효철 기자

전주소년원, 제주도 가족 캠프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장 오연호)은 24일부터 25일까지 교정복지전문기관인 세진회(이일형 목사)와 함께 제주도 가족 캠프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사는 소년원 학생과 보호자, 교사, 자원봉사원들과 함께 제주도 내 비자림, 성산일출봉 등 여행지 관람과 소년원학생과 보호자간 편지 낭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칠 예정이다. 가족캠프는 전국 소년원이 시행하는 개방처우의 일환으로, 수용시설을 벗어나 보호자와 함께 수용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소년원학생과 보호자간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관계를 두텁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가족캠프에 참가한 김모군은 "부모님이 이혼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고 화가 나기도 했다"며, "가족캠프 시간을 통해 어머니와의 대화로 조금이나마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영태 기자

교통사고 차량 견인 경찰 무전 불법 감침

법원, 자동차정비공업사 직원들에게 집행유예 선고

교통사고 차량을 먼저 견인하기 위해 경찰 무전을 불법으로 감침한 자동차정비공업사 직원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모(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모(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160시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견네편은 무전기를 통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군산경찰서 무선 주파수를 감청해 교통사고 현장을 선점한 혐의로 기소됐

다. B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업자로부터 구입한 무전기를 통해 경찰관들의 대화를 엿들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의 모 정비공업사 직원들이 이들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른 공업사 직원들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국가기관의 업무에 관한 내용을 감청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공업사 일을 그만 뒤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강석훈 기자

알루미늄 휠 생산공장서 화재

24일 오전 10시 13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알루미늄 휠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공장 설비 등이 타 소방서

추산 7천 20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소각로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강석훈 기자